KiRi 리 포 트
이슈 분석

#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 ④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과 보험산업 가치 제고

조영현 연구위원

요 약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보험회계(IFRS17, K-ICS)는 기존 보험회계가 보여주지 못한 실질적 성과와 리스크를 드러냄. 보험회사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단기 매출 확대가 아닌 중장기적 성장과 리스크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가치중심경영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치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사업조정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시장규율이 확립되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가치가 제고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회계는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며, 이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실질적 성과나 리스크를 알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중장기적 성과에 기반한 가치 제고보다는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했음

- 예를 들어, 자산운용수익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현행 회계에서는 투자이익이 흑자로 나타남
- 금리 하락 시 보험회사의 실질적 건전성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 간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해 건전성지표인 RBC비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 및 투자자가 보험회사의 실질적 건전성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으며, 금리 하락기에 보험회사가 실질적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했음

○ 새로운 보험회계(IFRS17, K-ICS)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회계정보에 보험회사의 실질적 성과와 리스크가 드러나게 되므로 보험회사가 중장기적 성과에 기반한 가치를 제고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새로운 보험회계는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수익-비용을 전체 보험기간 동안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함
- IFRS17는 보험회사의 미래 예상이익을 보험계약마진(CSM)의 형태로 보여주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전략을 실행하더라도 외부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새로운 보험회계에서는 그러한 전략이 CSM이나 예상수익과 실제비용 차이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
- 또한 K-ICS는 현행 RBC제도에 비해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하며, 일부 리스크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함

○ 그동안 보험산업은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회계시스템 구축, 경과조치 도입 등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회계제도하에서 보험회사 및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보험회사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회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안정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금융당국은 2021년 말 경과조치를 포함한 K-ICS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옴
- 제도 도입을 1년 앞둔 2022년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정착을 가정하여 보험회사 및 산업의 실질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임

○ 보험회사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단기 매출 확대가 아닌 중장기적 성장과 리스크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가치중심경영(Value-based Management)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므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①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위험조정성과)를 측정하고, ② 이에 기반하여 각종 전략을 전사적으로 계획·실행하며, ③ 이러한 경영 활동과 성과가 투명하게 공시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상품별로 구분하여 위험조정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조정성과가 낮은 상품은 상품설계부터 판매 및 계약유지에 이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나서야 함
  - 위험조정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사업부문 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임
- 프로세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험조정성과가 낮은 상품은 사업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치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이 확립되고 산업 전체의 가치가 제고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가치중심경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성과와 리스크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정보가 어떤 가정에 의해 도출됐는지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사업조정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효율성 및 가치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현행 1사 1면허 허가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그룹 조직 형태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업다각화 및 사업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험회사의 사업조정 기반조성을 위해 계약이전 및 계약재매입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